

융복합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과 그 가족의 서사 고찰 :

다니엘 스틸(Danielle Steel)의 세 소설을 중심으로

사공철*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작가 다니엘 스틸(Danielle Steel)의 세 소설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갈등과 균열 그리고 절망과 좌절이 어떻게 극복되는지와, 나아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대한 서사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으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재해석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이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존의 주체에서 오로지 자신에 의해 당당히 살아가게 되는 독립의 주체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작품을 해당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소설, *The House on Hope Street*(2000, 296쪽)『또 하나의 사랑』(2014, 368쪽)에 나타난 장애 주인공, 제이미(Jamie)의 지적장애와 그 가족의 서사를 ‘동작’(Active)을 통해 극복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 소설, *Full Circle*(1984, 447쪽)『끝없는 사랑의 여정』(2015, 상 339쪽/2016, 하 292쪽)에 나타난 장애 주인공, 타나(Tana)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그 가족의 서사를 ‘대화’(Talkative)를 통해 극복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 소설, *Mixed Blessings*(1992, 418쪽)『사랑의 한 가운데』(2017, 상 262쪽/2017, 하 228쪽)에 나타난 장애 주인공, 다이애나(Diana)의 임신 장애와 그 가족의 서사를 ‘입양’(Adoptive)을 통해 극복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장애인은 같은 또 하나의 ‘우리’이며 장애인의 서사는 곧 우리 삶의 서사이므로 장애에 대한 재해석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장애 또는 장애인이라는 다름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영구히 빛나는 사회, 그게 바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임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제이미(Jamie)의 지적장애」, 「동작」, 「타나(Tana)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화」, 「다이애나(Diana)의 임신 장애」, 「입양」

* 금강대학교 초빙교수

I. 서론

1. 연구 배경

1) 연구의 의의

장애 및 장애인은 주변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장애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들여다보는 이해만으로 장애 체험을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러므로 문학작품 내에서의 장애인과 그 가족의 서사는 의미와 맥락의 다중성을 고려하여 융복합적 관점에서 읽어낼 때, 비로소 장애에 대한 통섭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대 미국 작가 다니엘 스틸(Danielle Steel)¹⁾의 세 소설²⁾에 나타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서사를 재해석의 차원에서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천착하였다.

첫 번째 소설, *The House on Hope Street*(2000, 296쪽)『또 하나의 사랑』(2014, 368쪽)에 나타난 장애 주인공, 제이미(Jamie)의 지적장애와 그 가족의 서사를 ‘동작’(Active)을 통해 극복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 소설, *Full Circle*(1984, 447쪽)『끝없는 사랑의 여정』(2015, 상 339쪽/2016, 하 292쪽)에 나타난 장애 주인공, 타나(Tana)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그 가족의 서사를 ‘대화’(Talkative)를 통해 극복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 소설, *Mixed Blessings*(1992, 418쪽)『사랑의 한 가운데』(2017, 상 262쪽/2017, 하 228쪽)에 나타난 장애 주인공, 다이애나(Diana)의 임신 장애와 그 가족의 서사를 ‘입양’(Adoptive)을 통해 극복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1) 다니엘 스틸(Danielle Steel, 1947년 8월 14일~)은 미국 뉴욕 출생의 현 생존 작가로서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인종의 문제들 중에서 소수자, 사회적 배려자, 특히 장애인과 장애인이 등장하는 가족의 서사를 소재로 한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이러한 소재 등을 바탕으로 190여 편의 픽션·논픽션을 펴냈고 이 소설들은 43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 전 세계 판매량 누계 8억 권을 웃돌고 있다. 이 중 22개는 TV용으로 각색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다니엘_스틸) 그녀는 소설 부문에서 뉴욕 타임지 베스트셀러 1위, 전 미국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 등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작가이다. (<http://cartoonintro.co.kr/mssshop/ez/mall.php3?no=3745&query=view>)

2) 세 소설은 *The House on Hope Street*(2000), *Full Circle*(1984), *Mixed Blessings*(1992)이다. 이 세 소설은 공통으로 장애인과 그 장애 가족의 서사를 그리고 있고, 본 연구자에 의해 최초로 번역되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내국인 독자층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국내에 처음 출간 보급한 작품이어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자못 깊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의 장애인 등과 나눔 문화를 20여 년간 실천해 왔던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희망멘토링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2018.10.16), 국무총리 표창(2023.06.22.)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세 편의 소설에 공통으로 관류하는 핵심어는 장애 또는 장애인이다. 작가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인종의 장애 및 장애인과 관련된 극복 또는 치유의 문제들을 융복합적인 색다른 인식으로 짚어내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장애의 재해석」을 위한 연구 논문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필연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소설은 장애 극복을 위한 대중적인 인식의 호응에 기반 한다.

세 작품 모두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극복을 공통으로 담고 있고 이에 대한 독자의 호응도와 가독성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둘째, 세 소설은 장애에 대한 다원적인 관점의 조망에 기반 한다.

작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서사를 ‘스페셜 올림픽’³⁾(Special Olympics, 99)⁴⁾, ‘그리니치 효과’⁵⁾(Greenwich Effect, 31), ‘클리닉 테라피’⁶⁾(Clinic Therapy) 등으로 장애 주인공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환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다.

셋째, 세 소설은 장애와 관련한 의미와 맥락의 융복합적인 학제(Interdisciplinary) 연계에 기반 한다.

작가는 소설가로서 ‘동작’, ‘대화’, ‘입양’ 등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이론을 적용하여 장애를 극복하려는 시각이다. 바로 이러한 서사에서 대중에게 장애 관련 의미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고양하여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를 재해석할 수 있고 이종(異種) 학문 간 장애 정보 담론⁷⁾

3) *The House on Hope Street*(296쪽)에는 제이미(Jamie)의 지적장애 극복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스페셜 올림픽 등을 대비하는 신체활동 연습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는 장애 당사자의 동작 훈련을 통해 지력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으로 본문에서 논하기로 한다.

4) 이하 원서에 나오는 쪽수만 () 안에 표기한다.

5) *Full Circle*(447쪽)에는 타나(Tana)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리니치(Greenwich 31)라는 마을이 여러 번 나온다. 미국 코네티컷 주 남서부 페어필드 군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다. 원래는 인디언 원주민 마을로 계속해서 네덜란드의 통치, 영국 군대의 약탈 등 온갖 수난을 겪게 된다. 그렇지만 이 마을은 지금까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세계 최대 휴양지의 하나로 재탄생했다. 장애 주인공 타나는 이곳을 다니면서 주변인과 대화로 풀어나가며 조금씩 외상 후 스트레스를 소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자기 정체화 효과를 그리니치 효과(Greenwich Effect)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논하기로 한다.

6) *Mixed Blessings*(418쪽)에는 다이애나(Diana)의 임신 장애 극복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54), 팝 스미어 검사(Pap Smear 97) 등의 임상의학적 용어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 이를 통칭하여 클리닉 테라피(Clinic Therapy)라 한다. 이러한 산부인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불임이 되는 경우 입양을 통해 온전한 가정을 꾸리려는 것으로 본문에서 논하기로 한다.

7) 이에 대해 버거(Berger)는 “장애학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을 아우르는 간(間)학문적 성격을 띤다”(2013)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최근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담론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연구의 중심에는 융복합적인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이 있다.

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아, 본 연구에 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갈등과 균열, 그리고 절망과 좌절이 어떻게 극복되는지와, 나아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대한 서사를 분석함으로써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재해석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이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존의 주체에서 오로지 자신에 의해 당당히 살아가는 독립의 주체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자기 이해와 인식에 대한 재해석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장애 극복을 위한 다중적 변모의 계기를 확산하는 데 있다.

둘째, 장애를 편견의 대상으로 보는 우리의 인식을 바로잡고 장애인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상생에 기여하는 독립 주체임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융복합적이고 학제적으로 장애학에 대한 사회 교육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외연을 넓히는 데 있다.

넷째, 이상의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장애인 재활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작, 대화, 입양 이론을 사회적 장애 교육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운용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관점

다니엘 스틸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제조기'라 불릴 정도로 독자의 호응도가 높은 주제 의식과 다양한 표현양식에서 문학적 성취를 이룬 대작가이다. 그렇지만 그녀와 그녀의 작품에 관한 국내의 후속 연구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녀의 세 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장애 및 장애인'을 핵심어로 고찰한 논문은 지금까지 단 한 편도 없었고 본 연구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세 작품에서 '장애 · 장애인'이라는 주제가 매우 비중 있게 관류하고 있기에 이를 고찰해보려는 것은 본 연구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몫이었다.

그녀의 작품세계는 장구한 장애 서사를 담고 있다. 그녀는 장애아인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장애를 지닌 채 성장하는 장애아에 대한 성찰과 그 가족에 대한 숙고를 평생의 문학세계로 주조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다니엘 스틸의 작품에서 장애에 대한 재해석의 변모를 고찰하려는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저자의 작가적 독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되겠거니와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의 의미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 유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확대 재생산되어 다름과 차이가 환영받는 다원론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우리를 이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다니엘 스틸의 세 소설에 나타난 장애 또는 장애인을 연구하면서 각각 다음의 세 가지 관점으로 천착하게 되었다.

다니엘 스틸의 위 세 작품에 나타난 장애 또는 장애인, 장애 가족의 아픔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장애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장애와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이 다니엘 스틸의 문학적 필치와 결합 되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유도하고 그 의미를 심화시켰다. 작품 속의 장애인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면서 장애 가족의 장애 체험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우리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의 몫으로 일반화되는 것이다. 이 세 소설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함의는 바로 이런 확장성과 현실성에 있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서사로 형상화 되어『또 하나의 사랑』에 나타난‘지적장애’,『끝없는 사랑의 여정』에 나타난‘외상 후 장애’,『사랑의 한가운데』에 나타난 ‘임신 장애’에 대하여 재해석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본 논문 연구의 이론적 당위성이 그만큼 깊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과 분석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 작품에 관한 연구 방법 및 분석은 등장하는 장애 당사자의 장애 유형과 처한 가족 상황, 장애 당사자의 이름, 나이, 극복 유형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역자 번역 순에 따른 연구 대상 작품

소설 제목	저자/역자	장애 당사자의 장애 유형/ 처한 가족 상황	장애 당사자의 이름/나이	극복 유형/ 결과 분석
<i>The House on Hope Street</i> (2000)/『또 하나의 사랑』(2014)	Danielle Steel/사공철	지적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 뇌 손상(Brain Damage)/장애 당사자는 엄마 리즈(Liz) 가족의 막내아들이다.	제이미 (Jamie/9살)	동작/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하여 우승한다.
<i>Full Circle</i> (1984)/『끝없는 사랑의 여정』 (상 2015, 하 2016)	Danielle Steel/사공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장애 당사자는 엄마 진(Jean)의 딸로 유복녀이다.	타나(Tana /6살~41살)	대화/법관 시험에 합격하여 입신양명한다.

소설 제목	저자/역자	장애 당사자의 장애 유형/ 처한 가족 상황	장애 당사자의 이름/나이	극복 유형/ 결과 분석
<i>Mixed Blessings</i> (1992)/『사랑의 한가운데』(상 2017, 하 2017)	Danielle Steel/ 사공철	임신 장애(Pregnancy Disability) - 불임(Infertility)/ 장애 당사자는 앤디(Andy)의 아내이다.	다이애나 (Diana/24세),	입양/여아를 양녀로 받아들이고 행복 한 가정을 이룬다.

1) 『또 하나의 사랑』에 나타난 지적장애

첫 번째 소설, 『또 하나의 사랑』은 지적장애 주인공, 제이미(Jamie)와 어머니 리즈(Liz)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인물 간에 펼쳐지는 장애 가족 서사이다. 이 작품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엄마의 양육 경험이 작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그것이 장애인에게 그리고 장애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구하였다.

지적장애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능이 낮다는 의미로 천치, 백치, 정신박약 등과 같은 부정적 의미가 포함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인지 기능의 문제가 결손이 아닌 신체 발달 지연의 결과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적장애란 지적기능과 적응행동 상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이다. 미국에서는 “지적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 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 있어서 심각한 제한이 있는 18세 이전의 사람”(AAIDD, 2010)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란 일반적 지적 능력이 명확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지적 발달 기간에 적응행동의 결함이 야기되는 것을 말한다.”(Grossman 11)이렇게 볼 때, 지적장애는 지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지만 인지 능력이 낮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신체적인 행동 발달에 있어서까지 문제를 보일 때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적장애를 동작 훈련을 통해 극복하려는 관점과 맥이 닿는다. 이 작품에서는 장애아에게 동작의 일환으로 스페셜 올림픽을 향한 신체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지적장애를 치유 또는 극복하는 과정을 살피게 되었다. 따라서 지적장애로 태어난 제이미와 신체활동을 통해 양육시키는 어머니 리즈의 눈물겨운 모습에 대한 형상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변의 편견을 이겨내고 끝까지 신체활동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장애인 제이미와 어머니 리즈의 용기와 신념이 작품 내에 그대로 녹아 있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가족이 되어 다른

장애인은 물론 그 부모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 과정을 추적하였다.

제이미는 태어날 때 뇌 손상으로 인하여 지적장애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보듬는 가족의 포용과 제이미를 위한 여러 운동을 통해서 극복⁸⁾해 나가고 있다. 제이미는 자전거 타기(the bike, 84), 멀리 뛰기(do the running long time, 106) 단거리 달리기(do the hundred yard dash, 106) 계란 던지기(do the egg toss, 106), 부대 경주(sack race, 106), 높이 뛰기(do the running long jump, 113) 등의 운동을 연습한다. 이런 다양한 동작은 신체적 · 인지적 · 정서적 · 사회적 적응행동과 더불어 문제 행동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지적장애 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재활 수단이 된다. 따라서“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함께 수반되는 것으로, 활동 과정의 상호 작용에 의해 사고의 깊이와 폭을 넓히게 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배주옥 외 91)고 볼 수 있다. 제이미는 결국 운동선수가 되어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한다. 본 연구자는 장애인 운동선수로 거듭난 제이미에 대해 동작 요법을 통해 지적장애를 극복해 가는 전 과정을 본론 [표 2]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2) 『끝없는 사랑의 여정』에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끝없는 사랑의 여정』은 외상 후 장애 주인공 타나(Tana)와 어머니 진(Jean)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인물 간에 펼쳐지는 장애 가족 서사이다. 이 작품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장애 대상자와 그 자녀를 둔 부모의 장애 체험이 작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그것이 장애인에게 그리고 장애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구하였다.

외상은 일반적으로 신체 외부의 상처를 말하지만, 이로 인해 유발되는 심리적인 고통과 충격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극심한 외상적 사건에 직면한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장애이다. 이러한 외상적 사건은 개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또한 외상 경험이 후유증으로 지속되는 상태로서, 정상적인 대처 기제가 균형을 잃고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외상적 경험은 개인이 직접 성폭력, 강간 등의 사건을 겪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사건”⁹⁾도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세상, 미래, 사회, 직업, 인간관계에 대한 일상 기능을 저해하게 되는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반면에‘외상

8) 이를‘동작 요법’(Active Therapy)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요법은 정신적, 육체적인 일련의 운동 과정을 의미하는데“장애를 자신의 여러 가지 특성 중 하나로 받아들이며[장애 수용]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편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삶을 가치 있는 것”(주취경 9)으로 이끌게 한다.

9) 이에 관한 판단 준거는 DSM-5(2005) 또는 DM-ID(2018)의 기준을 따른다.

후 성장'¹⁰⁾은 외상 경험의 결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Calhoun, L. G., & Tedeschi, R. G., (215-238). 이런 경우 외상적인 기억과 상황에 대한 불안을 완화 시키고 심리적인 지원과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서는 래포(rapport)가 중요한데 이를 지지 정신 요법¹¹⁾이라고도 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이러한 요법을 실행하는 데 주로 그리니치 효과와 주변인 특히 친구와의 대화와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극복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대화를 통해 외상 장애를 극복하려는 관점과 맥이 닿는다. 이 작품에서는 타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는 회복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타나가 휴양지를 돌며 따뜻한 대화로 마음을 치유하며 외상 장애를 딛고 행복하게 자기 삶을 이끄는 전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 이야기는 타나의 6살에서 41살까지의 삶의 과정으로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은 타나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시작으로 한다. 유복녀인 타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 온 홀어머니 진(Jean)의 자식 사랑과 강간당하여 고통과 좌절과 방황으로 이어지는 타나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역경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제2부에서는 타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녀의 지난날의 악몽과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신념과 의지로 역경을 이겨내고 곳곳이 노력하며 성장해 가는 자신만의 이상과 꿈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제3부에서는 타나의 마음을 열게 한 남자 친구 해리(Harry)와의 따뜻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타나의 좌절, 불행으로 점철된 삶에서 이상과 꿈, 사랑과 성공을 일구어가는 모습을 잔잔하고 감동적으로 서술해 내고 있다. 본 연구자는 타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따뜻한 대화를 통해 극복해 가는 전 과정을 본론 [표 3]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3) 『사랑의 한가운데』에 나타난 임신 장애

『사랑의 한가운데』는 임신 장애가 있는 다이애나(Diana)와 남편 앤디(Andy)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인물 간에 펼쳐지는 장애 가족 서사이다. 이 작품에서는 임신 장애 부부의 장애 체험이 작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그것이 장애 당사자에게 그리고 장애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구하였다.

10) 이에 관한 연구로,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외상 후 성장 척도'(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송승환(2009)이 표준화한 척도(K-PTGI)를 활용하여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는데 각 문항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이 요법은 스트레스 장애인의 방어기제를 회복 및 강화시키는 요법으로 래포(rapport)가 바탕을 이룬다. 주로 '6가지 기법'을 대화 속에서 활용하여 긴장과 불안을 경감시켜준다. 6가지 기법으로는 보충(reassurance), 환기(ventilation), 제 반응(abreaction), 지지(support), 설득(persuasion), 암시(suggestion)이 있다(김영완 외 230).

임신 장애에 대해서 namu.wiki 등의 관련 문서에 의하면 명시적으로“아이(새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성숙한 동물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생식(번식)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장애의 일종이다.”¹²⁾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산부인과적으로 불임에 대하여“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을 배란 장애라고 한다”¹³⁾는 말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기에 불임은 부부 또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신적인 고통과 가정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가는 마치 산부인과 의사처럼 임신 장애를 겪고 있는 다이애나의 불임 치유를 클리닉 테라피 등의 임상 의료학적으로 매우 섬세하게 그리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게 되었다. 다이애나와 앤디 부부는 여아 입양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데 여기서 입양을 통해 임신 장애를 극복하려는 관점과 맥이 닿는다. 연구자는 이들 부부가 입양으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축복받는 가정으로 변해 가는 전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 이야기는 결혼과 2세의 탄생이 오늘날의 가정에 어떤 의미를 던져 주는 가를 깊이 조명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각 세대와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세 쌍의 부부를 등장시킨다. 첫 번째 쌍으로 등장하는 다이애나와 앤디(Andy) 부부는 신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명문 대학을 나온 다이애나는 잡지사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던 중 방송국 법률 고문인 앤디를 만나서 결혼한다. 누가 보아도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들의 결혼생활은 다이애나가 불임이라는 사실에 별거와 파경 직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힐러리(Hilary)라는 여자 아기를 입양하게 된다.

두 번째 쌍으로 등장하는 필라(Pilar)와 브래드(Brad) 부부는 구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부부는 변호사와 검사라는 별로 우호적이지 못한 사이로 만났으나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며 애정을 키운다.

세 번째 쌍으로 등장하는 찰리(Charlie)와 베스(Beth) 부부는 고아 출신으로 하류층의 가정이지만 행복한 결혼생활과 아기가 있는 가정을 꿈꾼다.

본 논문에서는 다이애나의 임신 장애만을 다루게 된다. 다이애나와 앤디(Andy) 부부는 입양을 통해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내는 전 과정을 본론 [표 4]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¹²⁾ <https://namu.wiki/w/%EB%B6%88%EC%9E%84>

¹³⁾ <https://blog.naver.com/koreamedicininae/223214812138>

II. 본론

1. 동작을 통해 지적장애를 극복하는 관점

『또 하나의 사랑』에서는 지적장애 주인공, 제이미가 동작 훈련을 통해서 지적장애를 극복하는 과정과 그 가족의 서사를 [표 2]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1) 장애 주인공‘제이미’의 지적장애 극복

[표 2] 장애 주인공‘제이미’의 출생, 말, 행동과 주변 인물, 환경

제이미의 출생, 말, 행동	제이미의 주변 인물, 환경
제이미는 유별난 아이였지만, 리즈의 삶에 특별한 축복이었다. 그는 두 달이나 일찍 태어났고, 태어날 때 처음에는 뇌에 손상을 입어 산소 호흡기까지 투입되었었다. 실명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그 대신 학습부진아가 되었고 정확하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남들과는 뭔가는 달랐고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차이를 느낄 정도로 더디었다. ¹⁴⁾ (16)	제이미는 형과 누나들과 같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것이 그가 태어난 후에 내내 따라붙은 딱지였다. 리즈는 처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적이었으며 특히 그녀에게는 심한 고통이었다. 동시에 엄마로서 리즈는 처음에는 큰 책임감이 따랐다. (16)
↓ ▶ 제이미는 선천성 경도 지적장애 아동으로 가족을 제외하고는 또래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어머니 리즈는 “특별한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제이미가“남들과는 뭔가는 달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제이미를 양육하는 방식의 하나로 제이미에게 알맞은 능력을 발견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지적장애 아동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면서 또래와 더불어 성장하며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 특히 엄마의 역할이 크다. ‘지적장애’는 지능 상의 기능 장애가 불규칙하게 반복되는 ‘정신 질환’과 달리 지능 상의 기능장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주변 여러 사람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적 도움’(coordinate care)이 필요하다. ▶ 제이미의 지적장애 증상을 탐색해야 하고 이에 맞는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머니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새로 산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 우울하게 말했다. “이제 자전거 타고 싶지 않아요.”(84) ↓ ▶ 지적장애인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우울증’(depressive disorder), ‘불안 장애’(anxiety disorder),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기분 장애’(mood disorder), ‘성격 장애’(personality disorder) 등이 나타난다(NADD 2018).	“아마 오늘은 가르쳐 줄지도 모르잖니” 엄마는 희망을 심어주려고 말했다. “그렇게 하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84) ↓ ▶ 이럴 때 부모는 눈물, 슬픔, 미안, 죄의식 등을 극복하기 위해 ‘조금 달라도 괜찮아’, ‘그렇게 하렴’등으로 아이의 마음을 수용해야 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¹⁴⁾ 제이미는 태어날 때부터 뇌 손상(Brain Damage)으로 인하여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제이미의 출생, 말, 행동	제이미의 주변 인물, 환경
"다시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제이미는 고집을 피우며 말했다. (87) ↓ ▶ 제이미는 '거부', '고집'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즈는 제이미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마음먹었다. 막내에게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87) ↓ ▶ 리즈는 제이미의 고집을 수용하고 있다.
"막 생각이 났어요. 난 지금 스페셜 올림픽¹⁵⁾을 준비할 수 없어요."그건 제이미가 꼭 참가해보고 싶은 축제였다. (99) ↓ ▶ 제이미에게 스페셜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니게 한다.	책[아버지]은 제이미를 도와 몇 달 동안 '연습을 했으며' 제이미는 보통 마지막에 오르거나 마지막쯤에서 참가하는 종목에서 어떤 종류의 리본이 달린 상을 탔다. (99-100) ↓ ▶ 결국 제이미는 아버지와 연습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된다.
"나는 멀리뛰기, 단거리 달리기 . . . 부대 경주에 출전할 거야."제이미는 우쭐대며 말했다. "나는 또 계란 던지기도 나갈 거야, 하지만 엄만 내가 너무 크대."(106) ↓ ▶ 제이미에게 지역 사회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격려와 응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종의 동작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멋지게 들리는데, 넌 틀림없이 또 상을 받을 거야."(106) "넌 틀림없이 해낼 거야."피터가 아이스크림을 더 먹으려고 하는 걸 챙겨주면서 동생 제이미에게 말하였다. (107) ↓ ▶ 가족은 제이미에게 칭찬과 자신감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 주고 있다.
"자신 없어요, 엄마." 기가 죽어 포기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마는 허락하지 않았다. "잘 안 돼요, 상 못 받을 것 같아요." (113) ↓ ▶ 제이미는 또다시 포기하려 하고 있지만 엄마는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격려하고 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날 봐라." 그녀는 막내아들이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시범을 보였다. 실제로 엄마의 시범 모습을 눈으로 보더니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졌다. "다시 해 봐." "아니야, 받을 수 있을 거야."리즈는 단호히 말하였다. (114) ↓ ▶ 엄마는 '다시 해 봐'라는 자신감의 회복을 유도하고, 운동 연습을 시킨다. 일종의 '동작'훈련이다.
제이미는 맨 처음 참가하는 경주를 기다리는 동안 안절부절못했으며 단거리 달리기 출발 지점에 정렬하여 있는 동안 갑자기 사색이 되어 엄마에게 다가왔다. "달리기 싫어요." 숨넘어가는 소리로 말하였다. "엄마 뛰지 않을래요."(121) ↓ ▶ 제이미는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아니야, 넌 뛸 수 있어." 리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타일렀다. "아들(제이미)아! 넌 뛸 수 있어. 시합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야. 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참가하면 돼. 마음 편안히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121) ↓ ▶ 어머니는 제이미가 중심을 잡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해 준다.

15) 지적 발달 장애인들 스포츠 축제로 신체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장애인 올림픽과는 구분된다. 케네디 대통

제이미의 출생, 말, 행동	제이미의 주변 인물, 환경
"이겼어요! 이겼어요! 1등 했어요 . . . 엄마! 나 이겼어요. 아빠가 계실 때에도 해 보지 못한 1등이에요."(123) "엄마, 기쁘지 않으세요?" 제이미는 어리둥절해 보였고 엄마는 미소 지었다. (123) "아니야, 행복하단다. 넌 정말 굉장했어!" 모자는 관중석에 있는 큰아들과 딸들에게 손을 흔들며 승리의 표시를 지어 보였다. ↓ ▶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는 엄마의 노력에 제이미는 결국 1등 상을 타게 된다. ▶ 지적 장애아동이 좌절감을 이겨내는 데에는 이처럼 주변의 격려와 칭찬 특히 엄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맏아들(피터)과 딸아이들은 진행 본부에서 단거리 우승자를 발표할 때마다 일어나 갈채를 보냈고 제이미는 금메달을 옆구리까지 내려뜨리고 있었다. 여하간 그날은 제이미가 승리한 날이었다. 제이미는 첫 번째 경기 후 멀리 뛰기에도 출전하여 은메달을 땀고 부대 경주에서는 공동 1위를 하였다. 그날 하루 금메달 두 개와 은메달 1개를 땀는데 태어나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23-124) ↓ ▶ 제이미 가족이 안정화 되고 행복한 삶으로 변해가는 모습이다. ▶ 이러한 변화는 장애아를 둔, 주변 사람에게 지적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가 있고 좋은 귀감 사례가 된다.

[표 2]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이미는 엄마 리즈의 지속적인 동작 훈련의 노력으로 마침내 운동경기에서 1등 상(123)이라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 엄마 리즈가 장애 아들에 대해 양육을 하는 방법은 장애 원인과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아이에 대해 지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상기시키며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이를 기꺼이 따르는 장애아의 의지가 다음과 같이 잘 형상화되고 있었다.

‘제이미에게 알맞은 운동 능력 발견하기’(16) → ‘제이미의 지적장애 증상 탐색하기’(84) → ‘제이미의 고집, 거부 등 수용하기’(87) → ‘제이미에게 동작 훈련 시켜보기’(99-100) → ‘제이미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 불어넣기’(106-107) → ‘제이미에 포기, 좌절감 이겨내는 중심 잡아주기’(114, 121) → ‘동작 훈련을 통해서 1등 상을 타고, 주변 사람에 대한 지적장애 인식개선 시키기’(123-124)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이미는 지적장애를 극복하게 되면서 장애아 가족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령의 여동생이자 사회사업가인 유니스 케네디가 1968년 미국에서 창시했다. 승패보다는 도전과 노력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1, 2, 3위에게 메달이 수여되는 것은 물론 참가 선수 모두에게 리본을 달아 준다. ‘스페셜 올림픽’은 ‘하계·동계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과 더불어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인정하는 3대 올림픽 중의 하나이다.

2) 선행 고찰을 통한 시사점

본 고찰에 대해서 오세철(2015)의 논문, 장애아에 대한“문학작품에서의 양육 경험 고찰”이 대단히 유의미한 연구이다. 그[오세철]는 자녀의 특성 이해하기, 어려움 수용하기, 편견으로부터 중심 잡기,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 갖기, 회복의 신념 키우고 인내심 기르기,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격려하기 등을 제시(116-121)하고 있는데 본 연구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이미는 태어날 때 뇌에 손상을 입어 학습부진아였고, 형과 누나들처럼 활동할 수는 없었기에 엄마로서 리즈는 큰 책임이 따랐다. 이 작품에서 장애아의 출생을 맞닥뜨린 지적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의 고뇌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단순한 양육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를 책임지는 엄마의 역할에서 제이미의 성장이 유도되고 있었다.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책임의 대상이 잘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이미가 육체적인 차원, 물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마는 제이미에게 자전거 타기, 멀리 뛰기, 단거리 달리기 등의 연습을 시키면서 스페셜 올림픽을 출전하게 하려는 노력은 결국 제이미로 하여금 1등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 이는 장애 극복 경험의 전이와 긍정적인 체험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련의 동작 요법이 지적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훌륭한 매개가 된 것임을 확인하게 한다.

2. 대화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는 관점

『끝없는 사랑의 여정』에서는 장애 주인공, 타나(Tana)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해 가는 과정과 그 가족의 서사를 [표 3]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1) 장애 주인공‘타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

[표 3] 장애 주인공 ‘타나’의 출생, 말, 행동과 주변 인물, 환경

타나의 출생, 말, 행동	타나의 주변 인물, 환경
그녀는 뉴욕 병원에 달을 때까지 몸부림치며 앤디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아이가 나왔다. (27)	그가 자신에게 남기고 간 딸 아이... 타나... (29)
앤디의 자식이다. 이 아기는 앤디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고 그녀는 아기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고 아기는 모든 것을 줄 각오가 돼 있었다. (28)	그[아서 더닝]는 아이에게 좋은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도 타나보다 두 살, 네 살 많은 아이 둘을 그리니치에 있는 캐씨드럴과 윌리엄스 스쿨에 보내고 있다. (31)
↓	↓
▶ 타나의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전사하여 타나는 무남 유복녀로 태어난다.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가정으로 출생부터 극도로 불안함에 노출되어 있다.	▶ 타나가 태어났던 주변 환경은 부유층 자체가 사는 학군이자 관광 명소로서 빈부 격차가 심하다. 타나의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타나의 출생, 말, 행동	타나의 주변 인물, 환경
타나는 열다섯 살의 소녀치고는 현실에 대단히 민감했다. (39) "아주 엉터리이군요. 여긴 당신 아버지의 침실이잖아요."(57) "가게 해 줘, 어린 놈팡이야!"(58)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그녀[타나]는 순결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빌리]에게 저항했다. 울 부짖고 혈떡거리며 숨을 쉬다 갑자기 그는 타나의 몸을 두꺼운 화색 카펫 위에 내동댕이치고 그녀의 드레스를 남김없이 찢은 그녀의 흰색 팬티마저 벗겨 그녀를 완전히 알몸으로 만들었다. (59) 그녀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무지막지하게 강간당한 것이다. (61) "빌리가 자기 아버지 방에서 저를 겁탈했어요."¹⁶⁾ (69) ↓ ▶ 타나는 겁탈당하고 그 충격으로 평생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빌리는 열일곱 살이었고 음주 운전으로 그해에만 벌써 두 번이나 걸렸었다. (40) "맞아. 그리고 네 늙은 엄마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지. 늙은 진[타나의 엄마]이 여기서 수도 없이 하는 일 말이야."(58) "지금 당장 나갈 거야."(58) "얼간이 같은 짓 하지 마."(58) "꼭 잡아, 이 어린 창녀야."(58) "재 엄마는 우리 아버지가 고용한 창녀지."(60) 타나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었다. (65) "말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정말로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진은 그저 딸을 쳐다볼 뿐이었다. 타나의 뺨에서 두 줄기 슬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69) ↓ ▶ 타나는 열다섯 살 때, 어머니가 일하는 주인집 자녀에게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도록 끔찍하게 강간당한다.
강간당한 후 처음 몇 달 동안,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도망치는 것이었다. (76) 그리고 매일 매일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피하고 싶었다. 특히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소년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두렵게 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 여기는 여학생만 있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댄스파티나 축구장에 갈 일이 없었다. (76) "우리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86) "... '돈 받는 창녀'. ... 빌리의 이 말이 아직도 타나의 귀에 생생했다. 그녀는 수천 번이나 그 말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려고 애썼다. (86-87) 끝없는 화색 벌판과 바닥에 흐른 그녀의 피, 빌리의 얼굴, 그리고 교통사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98) "앞으로도 그럴 거야. 더닝가(家) 사람들은 엄마에겐 신과 같은 존재니까."(100) ↓ ▶ 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오는 "도망", "회피",	갑자기, 그녀는 멀리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 아서로부터 ... 엄마로부터 ... 빌리로부터 ... 모든 사람들로부터 ... (73) 샤론의 유일한 친구는 타나였다. 타나는 어디든 샤론과 함께 다녔다. 그래서인지 샤론은 타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87) 이제 그녀는 더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 악몽을 뚫고 함께 달려주는 친구가 있는 것이다. (99) 그녀는 울고 샤론도 따라 울었지만, 말은 계속 흘러나왔다. 흐느낌은 점차 커지면서 통곡으로 변했다. 샤론은 그녀의 몸을 꼭 안아주었다. "탄, 난 네 말을 믿어"(99) "... 빌리는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바닥에 쓰러뜨렸지. ...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단지 ..." "...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 그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 ..." "... 그리고는 그는 나를 범했어. ... 온통 피범벅이 된

타나의 출생, 말, 행동	타나의 주변 인물, 환경
“자존감 상실”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언어폭력까지 당하면서도 주변은 신과 같은 존재들로 서 대항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이어진다. ▶ 타나의 “방어적 운둔”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 타나는 언어적 폭력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처절하기만 하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현실 도피 기제”가 발생한다.	나를 그냥 놔두고 가버렸지 . . .” “그런데 엄마는 내 말을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으셨어. . . . 엄마 말씀이 빌리 더닝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아무도 내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99) ↓ ▶ 타나는 엄마에 의지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에 무력하게만 보인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악몽을 꿔고 나갈 수 있는 따뜻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정서적,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한다.
“전, 이제 열여덟 살이라고요. 엄만 제가 대학에 계속 다녀서 성공하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121) “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122) “사랑감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정착하라는 거, 결혼하라는 거, 그게 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고요.”(149) ↓ ▶ 타나와 어머니는 결혼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타나의 “현실 거부 반응”은 계속 된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래야지.”(121) “난 그저 네가 . . . 난 네가 . . .”(122) “넌 이제 열아홉 살이나 됐다. 대체 넌 언제나 돼야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거니, 탄?”(149) ↓ ▶ 어머니는 딸이 강간당한 사실을 모른 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한다. ▶ 타나와 어머니의 소통 부재로 인한 외상후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무슨 뉴스를 말씀하시는 건지요?”(181) “모르겠어요.”(182) “애야, 살아가는 동안 뭔가 유익한 일을 하거라.”(182) “내 말은 네가 학교를 졸업한 후를 말하는 거야.”(182)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183) “난 유씨 버클리의 보울트 로스쿨에 갈 거야.”(184) “내 인생에서 그보다 확실한 건 결코 없다고 생각해.”(185) ↓	“그 앤 죽었다 . . . 그들이 샤론을 어젯밤 죽였어 . . . 총에 맞아서 . . . 귀여운 내 딸 . . . 사랑하는 내 딸을 . . .”(181)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샤론처럼 살지 말고.”(182) “정부에서 일하는 건 어때? 그게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거야.”(183) “로스쿨에 들어가면 어떠니? 타나야, 넌 여러 환경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 너라면 할 수 있지.”(183) “넌 할 수 있어. 너는 배짱이 있어. 샤론도 그랬었지. 하지만 그 앤 너와 같은 마음 자세가 아니었어. 어떤 면에서

16) 타나는 ‘열다섯 살의 소녀’(a girl of fifteen, 39)로서 열일곱 살 빌리(Billy was seventeen, 40)한테서 강간을 당한다. 이때부터 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타나의 출생, 말, 행동	타나의 주변 인물, 환경
▶ 친구와의 래포를 형성하고 대화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 가고 있다. ▶ 타나는 외상 후 상처를 딛고 로스쿨에 들어가 법관이 되려고 한다.	넌 나와 닮았구나.”(183) ↓ ▶ 어머니는 딸의 법과 공부를 응원하고 있다. ▶ 타나에게는 정서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전, 온종일 도서관에 처박혀 있어요. 로스쿨 3학년이에요.”(279) “시험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할 게 많아서.”(282) “저런 타나, 그래? 너는 뭐가 될 건데? 이 사회를 수호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285) “야엘, 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285) ↓ ▶ 친구와 끊임없는 따뜻한 대화로 상처를 극복해 가면서 동시에 나름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 타나는 독한 마음을 먹고 법과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되어 정의를 수호하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타나의 일련의 행동에서 외상 후 장애를 딛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근처에 사세요?”타나는 고개를 저었다. “학교에서도 전에 보지 못한 것 같은 데요.”(279) “남자도.”그는 감동받은 듯 해보였다. “그건 남자도 힘들어하는 공부인데요.” (279)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야, 타나? 얼굴 보기 힘들구나.”해리가 그녀에게 물었다. (282) 타나는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고, 지방 변호사 사무실에 일자리를 얻었다. 이제 성인으로서의 삶이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286) ↓ ▶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걷어 내고 있는 타나의 모습이다. ▶ 드디어 타나는 법과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다.
“좋은 일이에요, 엄마. 엄마가 너무나,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에요.”(424) “저 3주 후에 결혼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랑 해요. 상소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예요. 엄마, 이름은 러셀 커버그요.” “엄마, 기다리신 보람 있지요. 그 사람 만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결혼식엔 올 거죠? 우리 2월 14일에 결혼할 거예요.”(424-425) ↓ ▶ 타나는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판사와 결혼하게 된다는 소식을 알린다.	“대체 무슨 일인지 상상할 수가 없구나.” “너 <i>뭐라고</i> 했니? 누구랑? 지난 몇 년 동안 너랑 같이 산 사람이나?” “오, 사랑하는 내 딸 . . .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 . .”(424) ↓ ▶ 어머니는 타나의 결혼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타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소거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제왕절개 수술이라도 해야 된다면 어찌죠? 전 나이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녀의 나이는 마흔 살하고도 4개월이 지난 나이였다. (438)	러스의 집에서 치러진 타나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화려했다. (426) 러스의 두 딸도 남편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들은

타나의 출생, 말, 행동	타나의 주변 인물, 환경
“당신의 아들입니다, 러스. . . ” (440) “오, 우리 아기 너무 예쁘지요. . .”(440) “여보, 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446) 그녀가 발견한 이 남자. . . 그리고 그녀가 내린 결정들. . . . 즉 남편과 아이 없이 직장생활만을 하던 것에서 남편, 직업, 그리고 아들 모두가 소중한 것이라는 결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그녀의 머리 위에서 길을 비추어준 행운의 별들에게 그녀는 감사했다. (447) ↓ ▶ 타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극복과 치료로 대화와 정서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실감 나게 하는 장면이다. ▶ 마침내 타나는 남편과 직업에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게 된다.	둘 다 날씬하고 매력적이고 상냥한 기혼 여성들이었다. (427) “저희들이 성인이 돼서 아빠가 재혼하시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427) “아니요,” “당신이에요, 탄.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소.” (440) “이제 그녀는 마흔한 살이 되었고, 러스는 원두 살이 되었다. (443) “당신 또 임신했지? (446) “이런 생각이 들지 않소? 당신이 한 아이를 가진 판사라면 두 아이를 가진 판사도 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당신은 매우 훌륭한 판사요.”(447) ↓ ▶ 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딛고 판사로 임신양명하게 된다. 해피엔딩이다.

[표 3]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작품에서 타나는 열다섯 살 때,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붓오빠에게서 겁탈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타나의 부르짖음은 목숨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자 절규였다. 그녀는 인생을 포기한 채 울기만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서술되고 있다. 그렇지만 작가는 이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었던 타나의 좌절과 불행으로 점철된 삶에서도 대화로 극복해 나가는 장면을 통해 이상과 꿈, 사랑과 성공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고 있었다.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는 강간을 당한 충격’(65) → ‘오로지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도피’(76) → ‘방어적 운동 생활’(99) → ‘어머니와의 소통 부재와 정신적 방황’(121-149) →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따뜻한 대화’(181-286) → ‘친구의 응원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임신양명’(286)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게 되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426-447)을 꾸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2) 선행 고찰을 통한 시사점

본 고찰에 대해서 조성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는 단계로 초기충격(initial shock), 부인(denial), 우울(depression), 분노와 회의(personal anger and questioning), 적응과

성장(integration and Growth)의 5단계 모델을 제시(153)하였는데 본 연구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장애 발생 시기는 선천성(congenital)과 후천성(adventitious) 두 가지로 구분되며, 후천적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심리적 손상과 정서적 충격에 직면하게 된다(간우선 외 154). 이렇게 본다면 타나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경우는 아니고 중도에 외부 충격과 사고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된 경우이므로 후천적 장애인 또는 중도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타나와 같이 자신의 삶의 어느 한순간에 외상적인 사건에 의해서 장애를 갖게 된 중도 장애인들이 겪는 장애 정체성의 문제는 선천적 장애인의 사회 적응이나 비장애인이 생활하는 체계에 맞추어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다(허숙민 외 626). 따라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겪는 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장애를 지니게 되면 발달 단계에 따라 공통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장애인나름의 고유한 측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장애 정체성(Disability Identity)은 장애 이후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획득된 자아개념으로, 장애인의 장애인 됨을 의미한다(이익섭 외 114). 이런 장애 정체성이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려면 먼저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 경험이 특정 개인만이 느끼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소거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장애 결함의 소거로 형성된 긍정적 장애 정체성(Disability Identity)은 장애의 한계를 딛고 스스로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추동하는 개인의 내적 자원이 된다. 내적 자원으로서의 '레질리언스'(resilience)¹⁷⁾의 수준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레질리언스는 외상 후 성장을 증진 시키는 데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레질리언스 수준이 높으면 외상 후 성장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박계영 외 2014; 조용래 2014). 이는 타나의 외상 후 장애는 주변인과의 따뜻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치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타나는 대화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법조인으로 입신양명하게 된다. 이는 주변인 특히 친구와의 바람직한 대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련의 대화 요법이 장애를 극복하는 매개가 된 것임을 확인하게 한다.

17)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그 개념에 있어서도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종합해 보면 '자신을 조절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 위험한 경험들에 대한 상대적인 저항 또는 스트레스나 역경의 극복으로 간주 된다(허숙민 626).

3. 입양을 통해 임신 장애를 극복하는 관점

『사랑의 한가운데』에서는 임신 장애 주인공, 다이애나가 입양으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과 그 부부의 서사를 [표 4]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1) 『사랑의 한가운데』의 임신 장애 고찰

[표 4] 장애 주인공 다이애나의 임신 장애, 부부의 주변 인물과 환경

다이애나의 임신 장애와 남편 앤디	부부의 주변 인물과 환경
다이애나는 지금부터 1년 후에는 자기에게도 아이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다. (7)	앤디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늘 황홀했지만 언젠가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가슴이 설레었다. (7)
임신하기 위해 매달 배란기에 맞춰서 관계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50)	↓ ▶ 부부는 임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크다.
↓ ▶ 다이애나의 임신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 아이를 낳고 온전한 가정을 꾸리려는 부부의 바람이 잘 드러나 있다.
... 왜 모든 것이 이다지 힘든 걸까? 왜 자기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언니나 동생에게는 그렇게도 수월한 일이었는데. (50)	“그럼 무슨 일이야?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뭐야?”(50)
“아무 것도 . . . 나는 . . .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막 생리가 시작되는 것뿐이에요. 좀 우울하네요” 그 말을 하는 다이애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51)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다시 시도하면 되지 뭐 그 래. 이제 겨우 여섯 달째야. 1년이나 2년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 너무 걱정하지 마, 편하게 즐기자. 사랑해. 뭉콩이 아가씨.”(51)
↓ ▶ 임신 장애에 대한 다이애나의 우울, 실망, 슬픔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 ▶ 남편 앤디는 아내의 임신에 대한 가능성을 옹호하고 있고, 위로의 말에 아내 다이애나는 다시 힘을 얻는다.
“아니, 아직 임신하지 않았어.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 부부는 6개월 동안 매달 배란기에만 사랑의 잠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그러나 만일 게일 언니에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나 속이 상했다.	“임신했니?” 게일 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70)
“우린 둘 다 너무 바빴어.”(70)	“무슨 일로? 일 때문에?”(70)
“게일 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한 번 찾아 뵙고 의논할까 했어요. 임신하는 데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71-72)	“2주 . . . 아니면 5초 . . . 아니면 2년 . . . 사람들마다 다 달라, 다이애나. 이제 결혼한 지 겨우 여섯 달째잖아, 둘 다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한 1년 동안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2년 동안 전혀 피임을 하지 않으면서 임신이 되지 않아야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1년이 지나면 검사를 해 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대부분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임신하는 데 1년 정도가 걸려.”(72)
↓ ▶ 다이애나는 임신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 바빠서 그랬다고 변명하지만, 내심으로는 속이 상했으며 초조하고 점점 불안해하는 심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

다이애나의 임신 장애와 남편 앤디	부부의 주변 인물과 환경
▶ 불안한 나머지 주변 가족에게 임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묻고 있다.	▶ 주변 가족, 언니와 동생은 임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늠하면서 위로하고 있다.
다이애나는 의사가 검진을 마치자 테이블 위에 일어나 앉았다. 펍스미어 검사와 연례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부인과를 찾은 것이었다. (97)	“다 좋은 것 같습니다.”의사가 흡족한 웃음을 띠고 말했다. (97)
↓ ▶ 다이애나는 하는 수 없이 의사의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를 찾는다.	↓ ▶ 의사의 진찰 결과 임신 가능성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다.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임신을 하려고 애써 왔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만이 유일한 불만이에요." (97) 다 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애를 써서 그렇다.” “그냥 거기에 대해선 잊어버려라.” “걱정을 그만 해라.” 같은 바보 같은 말들만 하였다. (97-98)	“어쩌면 너무 애를 써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의사는 언니와 동생이 한 말을 되풀이하였다. (97) 하지만 매달 또다시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고뇌와 슬픔, 실망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는 스물여덟 살이었고,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갔다. (98)
↓ ▶ 임신이 안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안과 불만이 쌓인다.	↓ ▶ 또다시 임신에 실패했다. ▶ 슬픔, 실망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일주일 후에 유럽에 갈 거예요. 임신이 될 수 있는 때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죠. 어쩌면 그 여행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98)	"이렇게 합시다. 돌아왔을 때 임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죠." (99)
"결혼기념일을 축하해, 여보."	"아무 상관없어, 여보. 우리가 영영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요." (114)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야. 중요한 건 당신이라고." (113)
↓ ▶ 임신을 바라는 부부는 마음의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려 한다.	↓ ▶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다.
"나 임신했어." . . . "어쩌면 정자 수가 모자라는지도 몰라." . . . "언니가 먼저 임신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겼지." . . . "나 임신했어. . . 나 임신했어. . . 정자 수가 모자란다. . ." (135)	"전문의를 찾아가 봤니?" (138)
"사실은 다음 주에 어떤 전문의를 찾아가 보기로 되어 있어." (138)	"우리 아버지는 생식 내분비 학자이시거든. 만일 상황이 정말로 심상치 않게 되면 아마 널 우리 아버지께 보내게 될지도 몰라. 혹시 체외수정 시술을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하실지도 모르지." (139)
↓ ▶ 이탤릭 글귀는 다이애나가 임신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 다이애나는 다시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가간다.	↓ ▶ 전문의를 찾아 체외수정 시술을 논의한다.
"난 . . . 우리는 . . . 우린 1년 전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여 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3개월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141)	질문은 그녀의 피임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졌다. 그는 혹시 다이애나가 자궁 내 피임기구를 쓴 적이 있는지를 특별히 알고 싶어 했다. (141)

다이애나의 임신 장애와 남편 앤디	부부의 주변 인물과 환경
↓ ▶ 임신하지 못한 그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존스톤 박사의 병원으로 가서 자궁경부 점액 검사를 받았다. (139)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으면 좋겠네요." (142) 다이애나는 2주 후에 난포가 터져서 난자를 내놓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다. (150) 월요일에 다이애나는 다시 병원에 갔고, 배란이 된 지 7일이 지난 후에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피검사를 했다. 황체형성 호르몬 수치가 상승한 다음에 기초 체온이 즉각적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은 정상이었고 배란이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면서 임신이 되었는지 두고 보는 것뿐이었다. (150-151) ↓ ▶ 임신 가능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수많은 검사를 한다. "이제 내일이라고 없어요. 다음 주라는 것도 없고, 배란 일 검사고 없고, 체온을 쟈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165) ↓ ▶ 이제 내일은 없다고 하면서 임신 가능성을 포기한다. ▶ 불임으로 인해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한다. ▶ 불임으로 인해 절망이 고조된다. "앤디, 난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요." "아기를?" 그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도 입양을 원했다, (301) 그날 오후 그들은 에드워드와 제인을 다시 만나서 1차 서류에 서명했다. "약속해요. 아기를 잘 키울 게요 . . . 아기는 아주 행복할 거예요." (309) 그날 아침 그들은 아기 이름을 힐러리 다이애나 더글라스로 정했다. (311) "자, 엄마 해 봐." (312) ↓	↓ ▶ 의사는 피임기구를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문진을 계속한다. 그러나 배란기 때에는 배란이 되기 전에 난포가 얼마나 잘 발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할 것이고, 또 성교 후 검사란 것을 하는 데 그 검사는 다이애나의 점액을 검사하고 앤디의 정자 수와 운동성을 조사하기 위한 슬라이드 테스트였다. (143)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를 하기 위하여 피도 뽑았다. (143)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급증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 배란 키트를 사용해서 소변검사를 하라고 했다. (144) 하지만, 만일 자궁난관조영 검사에서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그달 말에 복강경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그러면 궁극적인 해답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검사는 끝이었다. (154) ↓ ▶ 의사는 임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실시한다. "당신도 나도 죽지 않았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렇다고 불치의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뿐이야. 하지만 난 그것 때문에 내 결혼생활을 포기하지는 않겠어. 물론 난 아이를 원해." (165) ↓ ▶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결혼생활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우린 그 아이를 원하네," 앤디는 간결하게 말했다. (301) "당신이 불임이라는 것을 알아낸 의사는 누구예요?" (336) ↓ ▶ 남편 앤디도 여아 입양을 원한다. ▶ 불임이라는 사실을 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입양임을 깨닫게 된다.

다이애나의 임신 장애와 남편 앤디	부부의 주변 인물과 환경
▶ 다이애나는 대안으로 입양을 결정한다.	
▶ 부부는 입양서류에 서명한다.	
빈곤에서 풍요로의 변화가 거의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녀와 아기는 병원에서 하룻밤만 보낸 뒤 다음 날 바로 힐러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402)	“그렇게 쉽게 아이를 가지셨다니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군요.”(406)
↓	↓
▶ 다이애나 부부는 입양아 힐러리와 함께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간다.	▶ 결국 ‘힐러리’라는 여자 아기를 입양하여 온전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표 4]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작품 전체를 통해서 다이애나와 앤디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모습과 불임을 인정하고 입양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고 있었다.

‘임신의 가능성을 기대’(7) → ‘임신에 대한 불안’(51)과 ‘초조’(72) → ‘임신 초기 검진’(97) → ‘임신 실패’(98) → ‘임신 가능성에 대한 단념’(113) → ‘체외수정 시술 등’(139) → ‘불임 사실 인정 및 포기’(165) → ‘입양’(301) → ‘행복한 가정’(402-406)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임신 장애 부부들이 대체로 경험하는 단계로, 임신의 가능성을 옹호하는 단계, 그다음 임신의 가능성을 포기하며 슬픔, 분노, 자존감 상실 등을 경험하는 단계, 불임의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입양하는 단계”(Daniluk and Mitchell, 2003; 옥수선 2014, 60 재인용)와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2) 선행 고찰을 통한 시사점.

이 작품에서는 임신 장애 검사를 위한 의학적인 처방 즉 클리닉 테라피를 무려 50여 회¹⁸⁾ 실시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작가는 마치 산부인과 의사처럼 이러한 검사를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이애나는 일련의 의학적인 처치를 정밀하게 받아 보았지만, 그녀는 결국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럴 경우, 언니와 동생,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임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남편의 포용과 사랑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명문 대학을 나온 다이애나는 법률 고문인 앤디를 만나서 누가 보아도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들

18) 다이애나는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54), 팝 스미어 검사(Pap Smear 97),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 139), 성교 후 검사(Postcoital Test 143), 정자 수와 운동성 검사(Sperm for Motility and Number 143),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143), 황체형성호르몬 검사(LH, Luteinizing Hormone 144), 나팔관 조영 검사(HSG, Hystero-salpingogram 153), 복강경 검사(Laparoscopy 154), 배란일 검사(Blue Test 165) 등의 의학적인 검사를 받았다.

의 결혼생활은 다이애나가 '불임'이라는 사실에 별거와 파경 직전의 위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재결합하면서 '힐러리'(Hilary)라는 여자아이를 입양하게 된다. 비로소 그들 부부 나름의 방식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입양은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는 법적·사회적 과정이다(Sharkey 8). 여기서 짚어 볼 점은 결혼과 2세의 탄생이 오늘날의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이는 임신 장애를 겪는 여성 또는 부부 당사자의 생물학적인 결함으로만 접근하는 태도에서 더 나아가, 법적·사회적인 차원의 인구 정책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지성은 '장애 여성의 선택과 권리를 넘어서 재생산권의 확보'라는 논문에서 "'몸'과 그것의 합인 '인구'가 생산성 향상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중요하게 인식 한다"(159)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국가나 제도적 차원을 통해 입양을 선택하는 것은 행복 추구를 위한 부부 당사자의 결정에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은 불임 해결 방식에서 임신 장애를 겪는 여성과 그 부부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인구 복리 문제로까지 지향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표 2], [표 3], [표 4]에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가 장애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서사를 [동작, 대화, 입양]이라는 틀을 적용해서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애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작품에 나타난 형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

Ⅲ. 논의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삶은 그 주변인 특히 가족의 삶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흘러가기 때문에,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삶의 여정에는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서사는 곧 우리 삶의 서사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세 작품은 각기 다른 장애 서사를 보여주고 있고 장애 주인공이 받는 상처도 다르며, 극복해 가는 과정과 방법도 다르다. 하지만 공통점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둔 가족 구성원의 내면에는 장애를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힘이 내재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힘에 의해서 장애 주인공들이 장애가 주는 고통을 주변의 사람 특히 가족과의 상호 연행과 환경을 통해서 승화시키게 되며 장애 당사자 자신의 의지로 한 단계 이상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장애에 대한 상처를 지닌 장애 주인공의 아픔과 고통을 타인에게 드러내 보이는 일

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기도 어렵고 또 때로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육체적 상처는 드러내고 터트리면 아물고 치유될 수 있지만, 마음속에 담아둔 고통은 곱씹을 때 그것은 장애 주인공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병으로 점차 커지게 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 이럴 때 장애와 같은 상처에 관한 문제를 치유 또는 극복해 나가는 서사를 그린 문학작품을 통해 읽어내는 것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가치 판단 체계를 성숙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더욱이 장애인이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이러한 문학 작품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아닌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 언제나 불행할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신체적 결합이 있는 성인의 장애도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뀌어 질 수 있음을 다니엘 스틸의 세 작품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세 소설에 등장하는 장애 주인공과 그 가족의 서사는 장애를 멈춰버린 시간의 조함이라 아니라, 오히려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교정하고 승화시키는 재해석의 차원으로 이끌어 간다.

첫 번째 소설에서, 우리는 장애 주인공 제이미가 어머니의 동작 훈련을 통해서 지적 발달 장애를 극복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장애 극복의 심연에는 장애는 다를 뿐이지, 우리와 같은 또 하나의 우리가 있음을 성찰하게 한다.

두 번째 소설에서, 우리는 장애 주인공 타나가 주변인 특히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애 극복의 심연에는 장애는 다를 뿐이지, 우리와 같은 또 하나의 우리가 있음을 성찰하게 한다.

세 번째 소설에서, 우리는 장애 주인공 다이애나가 법적·사회적 장치인 입양을 통해서 임신 장애를 극복해 냈음을 확인하였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애 극복의 심연에는 장애는 다를 뿐이지, 우리와 같은 또 하나의 우리가 있음을 성찰하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 주인공들과 그 가족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방향으로 자기 서사를 열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감정과 반응의 스펙트럼을 고찰하면서, 비 온 뒤의 무지개가 일곱 가지 다른 색깔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장애 또는 장애인이라는 다름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영구히 빛나는 사회, 그게 바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다만 문학작품에 나타난 장애와 관련한 본 연구에서 비장애인인 필자가 진정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내었을까 하는 부족한 점이 남는다.

참고문헌

Primary Texts

Steel, Danielle. *The House on Hope Street*. A Dell Book, New York: 2000.

Steel, Danielle. *Full Circle*. A Dell Book, New York: 1984.

Steel, Danielle. *Mixed Blessings*. A Dell Book, New York: 1992.

Secondary Sources

간우선 외 (2012).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장애 수용도와의 관계. 한국재활심리학회, 19(1), 149-174.

김영완 외 (2015). 비폭력 대화의 구성 4요소로 살펴본 대화를 통한 치유의 콘텐츠.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9, 217-240.

박계영 외 (2014). 초기 청소년 군인 자녀의 적응 유연성과 영향 요인. 군진간호연구, 32(1), 669-679.

배주옥 외 (2012) 설명에 의한 동작 요법 프로그램이 지적발달장애아의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연구, 30(3), 89-113.

송승환 외 (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연구. 한국건강관리협회, 14(1), 193-214.

오세철 (2015). 장애 자녀 부모가 쓴 문학작품에서의 양육 경험 고찰. 지체·중복·건강 장애 연구, 58(1), 107-135.

옥수선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비공개 입양 가족의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불임의 비공개 입양 부모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6(12), 55-84.

이익섭 외 (2006). 장애정체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척수손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 111-141.

조성재 (2007).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재활 상담 기법 및 증재 방안.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2), 493-508.

조용래 (2014). 외상 경험자들의 탄력성이 정신적 웰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외상 후 성장 및 외상 후 부정적 인지의 매개 효과. 인지행동치료, 14(3), 359-386.

- 주휘경 (2021). 『지적장애 청소년의 정기적 신체활동 참여가 긍정적 자기 인식 및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지성 (2011). ‘선택’과‘권리’를 넘어서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시론: 신체장애 여성의 경험에 나타난 재생산 정치. 『장애의 재해석』, 150-213.
- 허숙민 외 (2018). 중도 장애인의 장애 정체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레질리언스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12), 625-634.
- AAIDD (2010). *Intellectual Disability.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Systems of Support*. The 11th Edition of the AAIDD.
- Berger, R. J. (2013). *Introducing Disability Studies*. Denver: Lynn Rienner Publishers.
- Calhoun, L. G., & Tedeschi, R. G.. (1998). Posttraumaticgrowth: Future Directions. In R. G,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is, 215-238.
- Grossman, H. J. (1983). *Classification in Mental Retardation*.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Deficiency.
- <http://cartoonintro.co.kr/msshop/ez/mall.php3?no=3745&query=view>
- <https://blog.naver.com/koreamedicininae/223214812138>
- https://ko.wikipedia.org/wiki/다니엘_스틸
- <https://namu.wiki/w/%EB%B6%88%EC%9E%84>
- Kessler, R. C., Chiu, W.T., Demler, O., & Walters, E. (2005). Prevalence, Severity and Comorbidity of 12-month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 612-627.
- NADD (2018). *Diagnostic Manual – Intellectual Disability : A Clinical Guide for Diagnosis* (DM-ID-1, 2)
- Sharkey, P. B., (1998). “Being Adopted : Books to help children understand”, *Emergency Librarian*, 25(4), 8-10.

원고접수 : 2023. 9. 8.	수정원고접수 : 2023. 10. 30.	게재확정 : 2023. 11. 28.
--------------------	------------------------	----------------------

Abstract

The Narrative Analysis of the Disabled and their Families on Convergent Perspective : Focused on Danielle Steel's Three Novels

SaGong Cha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narrative of the conflict, the crack, and the despair, the frustration of the disabled and their families, which are common to the Three Novels of American author Danielle Steel, is overcome.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the narrative about the changes of the perspective on the disabili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this analysis not only promotes the reinterpretation and improvement about the perception of the disability or the disabled, but also confirms that the disabled can be now transformed from the subject of dependence on their own lives to the subject of independence that they live proudly by themselves.

This study analyzed following Three Novels.

The First Novel explored the process of overcoming Jamie'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his family's narratives through 'Active' in *The House on Hope Street* (2000, p. 296).

The Second Novel explored the process of overcoming Tan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her family's narratives through 'Talkative' in *Full Circle* (1984, p. 447).

The Third Novel explored the process of overcoming Diana's Pregnancy Disorder, and her family's narratives through 'Adoptive' in *Mixed Blessings* (1992, p. 418).

In conclusion,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providing the justification about the reinterpretation of the disability and showing that the difference of the disability or the

* Geumgang University

disable is a society that permanently shines in the name of the diversity because the disabled is the same other 'us' and the narrative of the disabled is the narrative of our life.

Keywords : Jamie's Intellectual Disability, Active, Tan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alkative, Diana's Pregnancy Disorder, Adoptive